

기본으로 돌아가자



장 궁 순 상무 | 바이엘코리아(주) 마케팅부

조선시대 역사에 조예가 깊은 한 저명인사는 양(면양이 아닌 산양)의 해에는 항상 어려운 일이 많았으며 2003년 재미년도 고단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과연 그래서 인지는 몰라도 이라크 전쟁과 북핵 문제 등 국제적 군사 외교문제, 국내의 정치·사회·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시끄러운 사건들이 연일 신문과 방송을 장식하고 있다.

경제 상황은 IMF로 고생하던 1998년 보다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인식이다. 축산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아니,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과거와는 달리 모든 축종에 걸쳐 성장을 멈추고 뒤로 후퇴하고 있다. 대체재니 뭐니 하는 경제 원리도 소용이 없다.

지난 7월 중순 육계 관련 통계자료를 들여다보면, 육계 kg당 840원, 병아리 100원, 냉동비축량은 절단 및 비절단육 전년대비 380%, 부분육 전년대비 147%, 삼계는 전년대비 무려 491%, 병아리 입식은 육계는 전년 수준이고 삼계는 전년대비 155%에 육박하고 있다.

이 상황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 중이며 그 원인 또한 너무 분명하다. 경제 침체로 인한 소비감소도 중요한 원인이지만 과도하게 생산해낸 우리의 책임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1년중 닭고기 소비량이 가장 많을 7월 초 현재 육계가격은 생산비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고, 병아리 가격은 종란 가격보다도 싸고, 냉동창고에는 닭고기가 가득히 들어차 있는데, 기사에서는 여전히 전년 수준의 육계 병아리가 자라고 있으며 삼계용 닭은 작년 보다 1.5배나 더 많은 수가 사육되고 있다니.

시장 수요보다 3~5% 많고 적음에 따라 가격의 등락이 천당과 지옥을 왔다갔다하는 것이 이 산업의 특징인데, 언제 저 창고 속의 닭고기를 다 소비하고 지금 사육 중인 닭들도 소비하여 닭고기 가격의 수익성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인가? 더구나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소비심리는 위축되어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말이다. 이 상황을 완전히 벗어나려면 경제 및 소비심리가 함께 살아야 하지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위기는 기회라고 하지 않는가? 우선적으로 육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힘을 합하면 적어도 지금의 상황을 완화시키거나 개선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위기를 넘기는 것만으로 그친다면 우리 또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결국 국제 경쟁력에 밀려 더 큰 고난을 겪을 수도 있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면 기본에 충실하는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닭은 우리의 바램이나 욕심과 달리 생리적 현상을 따르는 생명체이다. 닭에게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사양관리 기술만이 닭을 제대로 성장하게 만들 수 있다. 알맞은 사료급여 관리, 음수관리, 환기·온도 관리가 요점임을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양가가 이를 실천적으로 시행하고 있을까? 혹시 닭들에게 발자국 소리를 들려준 것이 언제인지도 기억 못하는 것은 아닐까?

질병관리도 마찬가지이다. 아직도 뉴캐슬병을 막지 못하고 막대한 피해를 보고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뉴캐슬병을 누구나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을까? 예방 접종 프로그램 하나라도 뉴캐슬 바이러스를 제대로 알고 그에 맞게 짜는 것일까? 며칠 간격으로 수 차례씩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뉴캐슬 바이러스는 우리의 바램이나 잘못된 가정과는 무관하게 본성대로 살아가며 닭의 면역기관도 본

래의 원리와 기능대로 반응한다. 또한 그 많은 병아리들의 상태도 균질하지 않다. 급한 마음과 욕심으로 닭을 대한다면 우린 기본에서 벗어나게 되고 닭들도 우리의 기대에서 벗어나고 말 것이다.

이제라도 종계, 부화, 사육, 도계, 유통, 시설, 사료, 약품 등 모든 육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기본에 충실하여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한다면 작금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경쟁에서도 지지 않고 안정되고 발전적인 육계 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로또 복권은 나만이 1등에 당첨되고 남들은 허탈해야만 하는 것이 속성이나, (육계)산업이란 관련 산업 모두가 함께 발전하고 튼튼하게 그 사업을 이어가야 다 함께 살 수 있는 것이다. 관련 산업 중 그 어느 하나가 기술 수준이 떨어지거나 부실화된다면 다른 산업도 약화되고 부실화되고 마는 것이다.

우리에게 항상 희망이 있다. 우리나라 국민은 많은 단점도 있지만 세계를 놀라게 하는 무서운 저력을 가진 민족이다. 신호등이 고장난 사거리에서 양보 없이 서로 차를 밀고 들어가서 아무도 꿈쩍달짝 움직이지 못하고 마는 것도 우리이지만 88 서울 올림픽과 2002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를 멋지게 치뤘던 것도 우리들이다. IMF를 불러온 것도 우리지만 장롱 속의 금반지까지 꺼내어 팔아가면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IMF에서 벗어난 것 또한 우리들이다. 단지 한 가지 차이는 기본에 충실하고 더 큰 목적에 의미를 두느냐 아니면 눈앞의 작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편법을 쓰느냐에 달려 있다.

육계산업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더 큰 목적과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모든 소비자들이 닭고기를 최고의 음식 재료로 받아들이고 믿고 안심하며 먹을 수 있게 만드는 데만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이제 정말 기본으로 돌아갈 때이다. C